

Daniel J. Treier 박사, 잠언, 세션 4

잠언 30-31장, 마지막 말씀

© 2024 다니엘 트라이어(Daniel Trei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r. Daniel J. Treier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잠언 30-3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잠언 읽기에 관한 앞선 두 강의에서 우리는 잠언의
도덕적 가르침을 7가지 미덕과 7가지 주요 악덕 측면에서 조사하여 이러한 틀과
잠언의 주요 우선순위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유사성은 철저한 중복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담 컬렉션은 또 무엇을
제공합니까? 가족에서 친구, 이웃, 왕에 이르기까지 사회 질서에 관한 관찰은
확실히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언 30장부터 31장까지와 관련하여
잠시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남아 있는 도덕적 강조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덕과 악덕은 간접적으로만 말하고, 말하고 듣는
것인데, 이는 전체적으로 매우 두드러집니다.

잠언에서는 말이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입과 귀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형성됩니다. 말 행위에 대한 잠언의 초점은 미덕과 악덕을 다루는 전체에 걸쳐
암시되어 온 자연과 은혜의 더 큰 틀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언의 초점은 도덕적 형성에
있으며, 특정 행위의 결과와 그것이 의로운 성품을 장려하기 위해 지혜나
어리석음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믿음, 소속감, 행동은
통합되어 있지만 잠언은 특히 수많은 행동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 속하도록 육성하기 위한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행동을 개혁하려는 시도에 대해 현실적입니다. 참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 도덕적 형성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포함하고 구원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셋째,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된 인격체로서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 형성에는 도덕적 형성이 필요하다. 올바른 믿음은 소속감과 행동을 떠나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지 내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포함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말하기와 듣기의 경우, 올바른 양과 올바른 자질로 말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자기 관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귀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행을 다룰 때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부분적인 도덕은 이교도들에게 가능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온전한 추구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귀를 여는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행을 다룬 후에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찾기 위해 사회적 맥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잠언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인간의 자유에 관한 복잡한 긴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과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정신과 혀의 병치는 인간의 성격이 말로 표현된다는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예수님에 따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인간과 신의 행위가 얹혀 있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긴장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대답 역시 주님의 궁극적인 권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결과, 즉 우리가 하는 말의 사회적 결과와 우리 마음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인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잠언에서는 말을 신중함이나 다른 미덕과 연관시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처리는 다양한 미덕과

악덕을 처리할 때 이미 눈에 띄게 표면화되지 않은 추가 범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험담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1:13 남의 이야기는 남의 비밀을 말하지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담대함을 지킵니다. 17:4 행악자는 악한 입술을 듣고, 거짓말쟁이는 악한 혀를 듣습니다.

18:8, 26:22에서도 반복됩니다. 속삭이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몸의 안쪽 부분으로 내려가는데, 그 묘사는 암시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구절에서 남의 소문을 듣는 사람의 성격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의 강한 유혹은 인정되지만, 공동체의 혼란은 알려진 소문과의 연관조차 피해야 할 정도입니다. 20장 19절. 그건 그렇고, 그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소셜 미디어와 뉴스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만 지속됩니다. 12장 19절입니다.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13장 5절. 그리고 그 구절의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진실과 거짓의 장기적인 성공을 비교하는 것 외에도 특정 형태의 거짓말에 직면합니다.

맛있는 뒷담화에 관한 잠언 26장 22절 이후에 다음 구절들이 있습니다. 질그릇을 덮은 유약 같으니 이는 악한 마음을 가진 매끄러운 입술이라. 원수는 속으로 거짓을 품고 말을 가장합니다.

원수가 은혜롭게 말하여도 믿지 말라 그 안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숨어 있음이라. 미움이 교활함으로 가려질지라도 원수의 사악함은 회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것을 굴리기 시작한 자에게는 돌이 되돌아올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희생물을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파멸을 일으킨다.
 부분적으로, 여기서 메시지는 아침은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침하는 사람은 자기 발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29장 5절.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지혜는 불편한 현실을 포장하기보다는 인기 없는 것을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지혜는 어려운 진실을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또한 아침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조심하라고 유혹합니다.

셋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을 가져오나 충성된 사자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15:4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15:23 적절한 대답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16:24 선한 말은 송이송 같아서 마음에 달콤하고 몸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나
 16:27 악한 자들은 악을 꾸미나니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의 힘에 대한 잠언의 현실성을 공유하셨습니다. 잠언 23:9, 네 말의 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동전, 즉 인격의 양면입니다.

말의 힘은 마술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을 표현하는 인간 행동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듣기와 말하기는 모두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드러내고 강화하여 상당한 공동 결과를 가져옵니다. 권력 자체는 부패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의사소통의 부패는 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넷째, 따라서 말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고 형성됩니다. 가정에 관하여 20장 20절에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너희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하였느니라. 한편, 비 오는 날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는

아내는 마치 바람을 제어하듯이 그를 제지하고 오른손에 기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27장 15절과 16절).

당신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잠언은 부모가 권위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직을 맡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육을 위해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16:10 영감받은 결정이 왕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심판하실 때에 범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지만 정치적인 비판의 여지도 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세 구절 뒤인 16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가 옳은 것을 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내하면 관원도 설득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25:15). 그러한 조언은 왕이 현명하든지(이 경우 조언은 지혜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둡니다) 적절하거나, 왕이 압제적이어서 주의가 일상적인 순서가 됩니다. 잠언은 말의 힘과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해 순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키울 수 있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며,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롬의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잠언은 인격을 우선시합니다.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말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피하고 배양하려는 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개인적인 기쁨과 공동체의 교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부터 31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해당하는 속담 모음집을 닫는 괄호로 묶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두 신탁은 분명히 이스라엘 외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첫째는 30절 1절의 아굴의 말입니다. 둘째는 31장 1절의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입니다. 이 신탁은 야훼의 계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Richard Schultz가 자세히 설명한 다른 정경에 대한 암시와 함께 31~6장과 7~9장의 아구르의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신탁은 실제로 잠언의 주요 주제를 요약하여 지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명령하신 활동 영역인 우주, 공동체, 가정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사실 아굴은 온전한 인류의 본질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간청합니다. 30장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 부적절하다는 고백이 4절에서 누구와 무엇이라는 두 종류의 수사적 질문을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4절을 삼위일체로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전에 승천과 하강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놀리게 합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기독교의 성령 전통과 관련된 바람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성육신에 관해 이전 독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삼위일체 신학이 궁극적으로 성취할 신적 계시의 논리를 드러낸다. 단순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올라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를 전하기 위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야훼라는 이름만이 다른 모든 것 뒤에 숨은 창조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창조주를 대표하도록 독특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신성한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소명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적절하다는 고백은 5절과 6절의 신성한 계시를 입증하는 두 개의 성경적 반진술로 균형을 이룹니다. 첫 번째 성경적 적응은 사무엘하 22:31 또는 시편 18:30에서 나오며, 가까운 문맥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암시합니다. 주님 외에 누가 신이냐? 두 번째 성경적 적응은 언약 계시에 인간의 말만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명기 4장 2절의 금지 사항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혼합됩니다. 시적 균형은 특히 숫자에 대한 상당한 의존을 고려할 때 다음 섹션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거짓된 말과 탐욕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8절과 9절에서 유명하게 계속됩니다.

7절에 따르면 시인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올바름을 얼마나 열렬히 추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족을 반영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뿐이라면 우리의 말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용서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30장 10절에는 종에 관해 버려야 할 거짓된 말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11절에는 부모에 관해 거부해야 할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일련의 구절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언어적 폭력과 탐욕스러운 억압 모두의 문제인 근본적인 교만을 연결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확장됨에 따라 탐욕과 채울 수 없는 욕망은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거머리를. 17절에서는 부모를 비웃는 교만한 자가 새들의 희생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는 신비가 있을 수 있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구제할 수 없는 음녀의 방식은 잠언이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는 20~23절의 공동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다른 방식을 동반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우리는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을 보고 작은 동물들에게서도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왕들이 그 위엄을 비교할 수 있는 큰 동물들도 있습니다. 29~31.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겸손을 키우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은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인 악을 계획하여 공동체 분쟁을 일으킵니다(32절과 33절). 이 빠른 둘러보기의 요점은 Augur의 신탁이 특정 악덕, 탐욕, 거짓 및 중상, 정욕을 거부함으로써 신성한 계시를 구하고 받는 것을 엮어 보여 주는 것입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부심.

창조된 질서는 잠언이 요구하는 야훼에 대한 경외심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외부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고결하고 조화로운 문화를 갈망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의 왕족 지위는 외국인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더욱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것처럼 그는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강의 내용도 일관적이다. 여자에 대한 정욕을 거부함, 31:3, 독주를 탐식함을 거부함, 4-7절. 왕은 무력하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도 정의를 베푸는 일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합니다(8-9절). 잠언 31장의 유명한 여인에 대한 찬가는 10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송가는 그녀의 가치가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일반적인 확언으로 시작됩니다(10절). 11절과 12절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초기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하고 그녀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3절부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다. 그녀는 영리하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14절).

그녀는 미리 계획하고 공급합니다(15절). 그녀는 다양한 사업을 추구합니다(16절). 그녀는 강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17절).

그녀는 편리한 첫 순간에 그만 두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18절). 이제 여러분은 책 전반에 걸쳐 매우 친숙한 주제를 요약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X 모양의 교차점이 있어 하위 단위 사이의 전환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A절에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에게 손을 뺀다는 것은 20B절에서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뺀 것과 같습니다. 19B절에서 물레를 잡고 있는 손은 일치하지만 20A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과 대조됩니다. 전체적으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언급한 강조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물을 통한 소득 창출도 묘사합니다.

이는 건강하고, 공동체를 위해 생산적이며,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주는 매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결과로 아내의 집안이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남편은 그 땅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23절), 그녀의 옷은 그 집 문턱 밖에서도 탐스럽습니다(24절).

25절에서는 옷을 은유로 사용하여 아내의 힘이 어떻게 그녀가 미래를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26절에 따르면, 아내는 그 자체로 지혜로운 교사이며 친절을 가르칩니다. 27절의 마무리는 아내의 부지런한 공급을 재확인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결론에는 아내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와 남편은 그녀의 독특한 탁월함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음녀와 정반대입니다. 그녀의 탁월함은 그녀의 남편과 온 공동체에게 매력을 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31절에서 계속되는데,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에 따르면, 많은 번역보다 더 나은 번역은 그녀의 손의 열매에 대해 그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지역 사회에서의 그녀의 우수성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이 마지막 장의 10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시는 삼합체로, 각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연속적인 문자로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디자인은 절정의 요점을 전달하는 양식화된 담론을 암시합니다. 이 송가는 확실히 문자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므로 르무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만큼 잠언의 여성 묘사를 평가하는 데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근본주의 가부장들은 산업화 이후 핵가족에 대한 단순한 비전을 제시할 때 아내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좌초되거나 어쨌든 그해야 합니다.

오히려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 집이 자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의미로 부지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Lady Wisdom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녀의 초기 작품인 Dame Folly는 문자 그대로의

방종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조장하여 공동체 내에서 실행 가능한 집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잠언 31장은 이상적인 언약 파트너를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져야 할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추구하는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이 될까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작품에 관한 결론은 이 송가의 더 넓은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고, 부지런하고, 술선수범하고, 힘을 발휘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좋은 평판과 결과를 누리고, 지혜를 남에게 가르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헌신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신께.

잠언 30장부터 31장은 지혜의 우주적, 사회적, 가족적 맥락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는 책의 더 넓은 강조점에 맞습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많은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동물계나 우주의 특징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명합니다.

이 속담적인 실천 뒤에는 가족, 사회, 우주 활동의 교차 영역을 통해 창조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 기반의 문화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 잠언은 우정의 지적인 가치를 분명히 단언합니다.

자선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데 필수적인 특별한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친구로 발전할 이웃을 선택하는 계산 기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고 특정 선택이 허용되는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에는 나쁜 친구가 좋은 성품을 망친다는 자명한 사실(고린도전서 15:33)과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계속 붙어 있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위해 기꺼이 우정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포함됩니다. 공동 성격은 이러한 지역적 수준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 수준에서도 작동합니다. 의인이 이기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이기면 백성은 피하느니라 잠언 28:12.

마찬가지로 같은 장 28절에서는 악인이 이기면 사람들이 숨고, 그들이 멸망하면 의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잠언은 왕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29장 2절)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14장 34절) 다음 절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받느니라.

28장 2절과 같은 구절에서는 왕의 권위가 비슷하게 확증되지만, 잠언은 왕이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를 중재하고 지혜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음이라(16:12). 악한 왕들의 손에 권력이 주어질 위험은 심각합니다. 통치자가 거짓된 말을 들으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질 것이다, 29:12. 이는 아마도 트위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우는 사자나 돌진하는 곰과 같습니다(28장 15절). 왕은 자기보다 남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14:28. 우정과 왕권에 대한 이러한 취급은 우리가 이미 세 번째 범주인 가족 관계, 배우자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접한 것과 일치합니다.

배우자 친밀감은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갈등과 어리석음은 불행과 위험을 가져옵니다. 부모의 권위는 특정한 삶에 지혜를 가져다 주고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권위를 남용하면 압제를 가져오는 반면, 반역은 붕괴를 가져옵니다. 이 자료 중 일부와 관련하여 Michael Fox는 중요한 신학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제가 인용하자면,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의 말이 현자들에게 재치 있는 말이나 투덜거림이 아니라 지혜처럼 들리게 된 것은 잠언을 형성한 집단적 계획이 다툼의 해로운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산한 총 31개의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구절은 이 문제가 현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조화가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부조화가 심각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활력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부모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확장됩니다.

17장 6절, 손자는 만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자녀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넷째, 징계라는 주제를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녀를 미워하여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도 빛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22장 6절은 비록 이 구절이 악명 높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각주에 인용한 특정 저자인 Ted Hildebrand의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아이는 훈계를 좋아하지만, 스토크는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아동 학대와 기타 현대적 감성에 비추어 훈육의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해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읽으면 잠언은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 적절한 신학적, 도덕적 경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의 행위로서 징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징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재확인되는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둘째, 현명한 부모의 사심 없음, 특히 분노한 행동을 피하는 태도는 모든 신체적 형태의 처벌을 상당히 완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징계에 관한 본문의 우선순위는 체벌이 아니라 말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교정의 중요성에 관해 젊은이의 주의를 끄는 것은 기억하고 따라야 할 적절한 헌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체적 징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 문화에서는 그러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적절하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일부 형태의 처벌은 실제로 잠언의 하나님과 같은 징계에 대한 사랑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에서 우리가 갖는 가르침이 신약성서의 가정 구절에서 갖는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과 4장, 에베소서 5장과 6장, 그리고 다른 가정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이 본래의 역사적 배경이나 배경의 사회적 맥락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독자는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성경이 남용을 완화하고 영구적으로 불법적인 관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성경이 역사 과정, 구속사 등의 과정에서 후속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독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역사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시의 텍스트 패러다임을 차별 없이 순진하게 현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학적 해석가들은 성경의 신성에 대한 신뢰의 해석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적 맥락에 대한 건전한 의심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언을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 대해 일반적이고 영구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언이 그 맥락과 관련된 요소를 가정하고 그 안에서 신성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언 자체는 구원 역사의 더 큰 맥락에서 잠언의 조항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이후의 죄로 저주받은 역사를 다루는 다양한 조정을 구별하는 마태복음 19장과 같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잠언의 맥락의 일부로서 나머지 성경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동 관행. 이런 접근 방식으로 잠언에 대해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언은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 윤리를 진심으로 확인하며,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현명한 삶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잠언은 자녀를 세심하게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단언하며, 아버지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합니다. 즉, 그 관심은 먼 군주적 가부장적 지위가 아니라 오히려 친밀하고 겸손하며 아버지다운 목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아내의 말과 같은 젠더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신발이 반대쪽 발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거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논쟁적인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잠언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 여성의 지혜를 진심으로 확인합니다. 잠언 31장은 영속성의 한 예로서 정점에 있는 송시입니다.

지혜의 의인화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독자가 필요로 하는 현상 내에서 말하는 이 책의 현상학적 경향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문화적 패턴을 완전히 무관하거나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며,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의 중요성. 따라서 한편으로 우리가 문맥상의 가정과 차이점을 허용할 때 잠언을 읽으면 여전히 다섯 가지 잠언 사이에 상당한 문화적 구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잠언을 읽는 것은 우리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잠언은 현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특히 책의 세계관에서 안정된 공동체와 질서정연한 우주의 축복과 함께 양육의 깊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잠언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핵심적인 신성한 계획에 우리의 헌신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고 노력하는 면에서 서로를 능가할 것입니다. 창조된 자유와 진정한 축복의 참된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오는 사회적 관심을 생각해 보면 가정 생활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물론 어떤 비유에도 평행선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단지 유사성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다른 현실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가정은 영적인 삶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유이기도 하며, 잠언에 나오는 영적인 삶을 비유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거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교회교의학』 3장 4절에서 “영적 삶에 대한 대규모 해설서로 읽을 수 있는 잠언은 어떤 의미에서든 비영적인 책은 아니다”라고 논평 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규정하거나 명령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재판과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조언하고 초대합니다. 이 결정은 항상 아버지의 교사이자 조언자 위에 있는 법원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다섯 번째와 첫 번째의 관계 문제가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숨겨져 있으며, 회개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이 비록 사실이지만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르트가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관심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근본적인 맥락에서 공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행전 5 장 :29. 예수께서 성전에 남아 아버지의 사업을 하시면서 육신의 부모를 괴롭게 하실 때 누가복음 2 :42-43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지상의 모든 양육의 올바른 방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값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지혜를 심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속담에 나오는 가부장제와 건강한 양육 모두를 적절한 맥락에 두었습니다. 잠언이 양육과 교육에 관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관련된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대신하여 생명을 낳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여 소중한 자녀 한 명 한 명이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재능에 맞춰 유산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성부와 성령과의 친교가 다른 자녀들의 양육에도 흘러들어가며, 그 자녀들도 스스로 양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간 삶의 각 단계에는 부모 사이에 엄청난 신비와 갈등이 놓여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모든 신비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는 요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잠언 31장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듣고 말하는 활동이 잠언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약을 맺고 지혜가 자라도록 권유하고 강화하는 계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 부록에서 우리는 잠언 8장과 지혜의 여인의 프로필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강의 전반에 걸쳐 나는 인간의 양육과 사람들을 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육학 사이의 비유에 비추어 기독교인들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언 31장의 송사에서 이 비유와 그 지혜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지혜의 여인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잠언 8장의 22절부터 31절까지의 정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철저한 변론을 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이, 나는 우리가 이 지혜의 묘사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섯 가지 기본 단계를 통해 이를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동사의 의미이다.

이 구절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사 중 첫 번째는 8:22 에 나오는 카나 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잠언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획득 또는 소유와 관련됩니다.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이름인 칠십인역은 이것을 단순히 획득하거나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라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리우스 기독교론에 대한 온갖 종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혹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읽고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Tremper Longman은 히브리어 용어의 범위와 현대적으로 평행한 것이 get과 beget의 쌍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획득, 소유의 방식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낳고 있습니다. 낳고 있어요.

낳는 것은 이 구절에 들어가는 한 방법이다. 이러한 지혜의 탄생은 주님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롭고 깨끗한 생각이 일치될 것입니다.

8장 22절에는 시작과 같은 몇 가지 시간적 표시가 있지만 그 비교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진행하면서, 지혜를 피조물로서 성급하게 가정하는 대신, 내가 제안하려는 것은 지혜가 여기서 창조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낳은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본문의 정통 기독교론적 성취나 적용을 위한 훨씬 더 많은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8장 23절에 있는 두 번째 동사는 어근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배경에 왕이 설치되는 장면이 있나요? 직조가 있습니까? 임신 등과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8:22과 23이 함께 Lady Wisdom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낳으심으로, 그분의 다른 초기 사역보다 먼저 따를 수 있는 그분의 길의 시작에서 나를 낳으심으로 나를 얻으셨거나 소유하셨습니다.

영원부터 나는 땅의 태초부터, 태초부터, 낳는 형상을 고수하며 함께 짜여졌느니라. 따라서 이것이 옳다면 지혜가 여기서 피조물이 되는 것과 관련된 기독교론적 합병증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측면에서 지혜를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은 8장 30절에 아몬의 의미와 정확히 우리는 어떠한가... 자 그 사이에 27절과 29절의 패턴은 24절과 25절과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래위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전체 우주를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물과 관련된 혼돈은 토라에서 명령을 내리시어 인간의 삶에도 경계를 설정하신 동일한 주님께서 표시하신 경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절은 8장 30절에서 내가 그의 편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번역 가능성 중에는 장인이나 장인이 꽤 오랫동안 선두에 있었지만 예레미야 52장 15절의 관련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잠언 33장 19절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라에 이어 마소라 본문을 수정한 것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가능성인 어린이나 간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 번째 가능성인 장인이나 숙련된 일꾼을 말하자면 두 번째 창조자를 소개하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 앞부분에서 출생에 대한 집착이 명백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전체 우주를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드시는 중간 구절에서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이 지혜를 갖는 중력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 그래서 최근에는 8장 30절을 다루는 데 더 유망한 세 번째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는 이 구절의 첫 구절을 장인이나 장인이라는 용어가 아닌 굳건함이나 충실함이라는 용어에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그 옆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위크스(Stuart Weeks)도 마찬가지로 이 어휘적 배경을 강조하여 이 용어를 신실하게 번역했는데, 그에 따라 지혜는 신실한 것으로 존재하거나 신실함으로 존재합니다. 관련된 충실함은 단순히 일시적인 존재를 초월하여 종교적 경건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과 14절에 나오는 잠언 8장 30절에 대한 암시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아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론적

암시로 보이는데, 다시 읽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잠언 8장 30절에 대한 해석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 옆에 끊임없이 또는 신실하게 있었다면 이 구절은 과거에 묘사된 상태와 사건의 시기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잠언 8장 30절은 창조 중에 하나님 옆에 지혜를 두며, 31절의 기쁨은 아마도 창조 자체에 대한 잠언의 행위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 반하여, Bate가 8:27부터 8:29까지 도입한 when 절은 이미 I was there in 8:27이라는 진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함께 연결하는 표어가 있는데, 이는 그들 사이의 시간적 이동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짐승에게도 마찬가지다.

8장 30b장에 나오는 빛의 날마다의 차원은 창조 이후의 8장 31절과 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8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창조 동안의 지혜의 임재를 묘사하고, 8장 30절과 31절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혜의 기쁨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Leece의 말을 인용하면, 이 구절은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세계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왕이 통치하고 인간이 살롬을 찾는 원리가 될 자격을 더욱 부여합니다. 이제 8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거나 심지어 옳다면, 29절과 26절에서 지혜가 우주보다 앞서는 방식을 다루면서 거꾸로 작업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3, 4, 25가 가는 중입니다.

후자의 세 구절 각각은 지혜 이전에는 우주의 일부 특징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 자료에 대한 기독교론적 접근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주장과 일치할 것이며,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정교회는 로고스를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이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로고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어려운 질문은 8장 22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이미 제안한 지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조항에 따른 생물.

위에서 본 동사는 생성된 것보다 적거나 획득한 것을 의미하거나 생성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정한 은유적 의미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라는 개념에 대한 은유적 용법이 빈번하고, 결국 이 텍스트는 시이다.

출산은 시적 또는 은유적 사용법의 문제이므로 신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출산의 성격과 시기, 그리고 그것이 의인화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출산에 대한 비문자적 이해는 이 구절의 시적 성격과 잠언 전반에 걸친 가족 이미지의 상징적 힘, 그리고 잠언이 지혜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나 일종의 은유의 측면에서 지혜가 비존재에서 존재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질서 속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고전 기독교 신학이 지혜의 신성한 혈통에 대한 이 본문의 은유적 확립을 올바르게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8장 22절에서 가장 어려운 절은 두 번째 절이다.

이단적인 아리안 기독교론에서처럼, 오래 전 그의 첫 번째 행위는 일련의 우주적, 일시적, 역사적 작품의 시작 부분에 지혜의 탄생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번역된 용어는 시간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박국 9:12에서처럼 더 나아가 하느님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주는 옛날부터 아니시니이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장 22절 끝 부분에 오래 전의 추가가 시편 92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세워졌나이다. 당신은 영원에서 왔습니다.

그 표현은 지혜가 창조적인 패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원한 독특함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어휘는 기술적, 신학적, 기독교론적 질문에 대해 그 자체로 판단할 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싶다면 우리의

선택은 여기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일시적인 시작이 아닌 영원과 창조자와의 연관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문학적 기능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물론 지혜의 의인화는 시적 형상을 취하는 구절 가운데 문학적 모티브이다. 여기서는 야고보가 따르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신적이든 아니든 지혜가 있는 위격이나 인물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자 안에 직접 계시지 않으며, 확실히 인간 저자나 편집자의 마음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지혜는 단순히 신성한 속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인화는 은유적으로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라는 신성한 속성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가 그것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따르면 신성한 속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는 예언적 과정 자체가 단지 창조적인 현실로 취급된다면 지혜가 그것을 명백하게 의인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언 8-9장은 잠언 10-31장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성한 가르침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놀랍도록 개인적인 신성한 자기 계시를 통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지혜의 개인적인 초대를 창조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로컴(Richard Brockham) 과 다른 사람들이 강조한 것처럼, 이사야와 다른 곳의 구약성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구원의 성취와 관련하여 미래에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 독자들에게는 구약성경이 신성한 생명과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신비한 관계에 대한 힌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더 완전한 계시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과 같은 지혜 본문과 주제, 구절을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처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만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창조적 문해력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나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 사이의 최종적인 논쟁이 잠언 8장의 주제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기술적인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본문 표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주석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전 기독교 해석자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단지 창조의 특징이나 신성한 속성일 수 없다면, 지혜의 신비한 기원은 탐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자체는 원래의 맥락에서 완전한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 신비한 권위,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시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세상,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이 본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야훼이고, 마지막 단어는 아담입니다. 잠언 8장의 맥락에서 본문의 일부는 지혜가 단순히 왕이나 군주제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부모와 인간이 아닌 피조물을 통해 현존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이 중재의 성격을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준신적인 것인지,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피조물인지, 아니면 정교회가 예수와 관련하여 주장한 것처럼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겸손의 형태로 완전히 신성한 것인지 여부 그리스도.

그러한 해석적 도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할 때 특별한 형태를 취하지만, 그것은 이미 본문 자체에 잠재되어 있는 신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연대적으로나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어떤 종류의 피조물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낳는 은유는 피조물과 창조자로서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성한 생명과 성품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 지혜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에서 나온 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않지만 본문에 잠재되어 있는 신비의 해결을 제시하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와의 직접적인 접촉, 인간의 삶과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서둘러 설명한 방식으로 신약성서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언 8장에 대한 이러한 취급이 수많은 복음주의 구약학문의 무게에 맞서는 신학자의 소수 견해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 점에 관해 나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잠언 8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의인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도 제가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했던 방식으로 잠언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성취의 정점을 볼 때까지 완전하고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신성한 겸손과 계시에 대한 신비한 성격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우리와 접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학과 관련하여 하려고 하는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삶의 관리들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우주 전역의 부모와 평범한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조화로운 살롬의 언약관계를 가져오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잠언의 핵심은 인간의 양육을 통합하여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신성한 교육학입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의 우주적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비롭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잠언이 가리키고 참여하고 있는 교육학을 성취하시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Daniel J. Treier 박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잠언 30-3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